



남원실내수영장 개장식 열려

남원시체육회는 7일 오전 10시 남원시의회 이미선 부의장 및 의원, 체육회 임원, 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각종위원회, 수영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종합스포츠타운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위탁운영에 따른 개장식을 가졌다.

이날 개장식은 도통농아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테이프커팅, 기념촬영과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축구장 내부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미선 부의장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 수영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대대적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실내수영장은 전체면적 2,965.7m²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길이 25m의 6데인풀과 사무실, 텔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탁구장 14탁, 헬스장, 북카페, GX룸,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췄다.

류현성 남원시체육회장은 “현재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600여명의 회원이 등록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수영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행정동우회, 행락철 환경정화활동 펼쳐

진안군행정동우회(회장 이부용)는 7일 진안읍 가마리에서 행락철 맞이 용담호의 수질 보전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4월 상당면 월포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행정동우회원과 진안읍민 등 80명이 참석했으며, 진안읍 가마리 하가마을에 모여 금강 상류 하천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을 수거했다.

이부용 회장은 “금강 상류의 물은 용담댐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만큼 빙울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용담호 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에게 더욱 깨끗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자원 보호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동우회는 공직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150명의 퇴직공무원 단체로, 그동안 공직자로서 군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청정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업의 꿈 펼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

전북대 미래 청년농부들, 친환경 재배 3개 품종 홍보·판매 행사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블루베리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ONE-YEAH(원예)협동조합 학생들로 구성된 자작반 ‘무블리’는 전북대학교 부속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능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3품종의 블루베리(신틸리, 스타, 에메랄드)를 선보였다.

ONE-YEAH(원예)협동조합은 영농창업을 위한 원예작물 재배, 가공, 판매, 홍보 등 실무역량강화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이 영농 창업동아리 인큐베이팅 모델로 육성한 협동조합이다.

현재 과수·채소·회화분야 자작반으로 무블리, 뉴진수박, 백반집, 이辱, 철이네빨간딸기, 포도씨유, KVS(Korea Vanilla Subiet) 등 7개 자작반을 운영 중이며, 각각 블루베리와 무화과, 애플수박, 백향과, 디우식물, 딸기, 포도, 바닐라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날 선보인 블루베리는 3가지 품종으로 신틸라는 당도가 제일 높은 대과종 품종이고, 스타는 신맛이 없고 단맛이 강하며 식감이 좋은 대과종 품종이다. 또한 에메랄드는 과실 색이 진한 대과종이며 신맛보다 단맛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장은성기자



학생들은 이날 전북대 건자광장 부근에 부스를 설치하고 올해 첫 수확한 블루베리를 홍보했다.

황민혁 자작반장은 “출업 후 창업에 성공한 선배 멘토에게 재배 환경 조성 및 관리 기술 등에 대해 현장 멘토링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오늘 3 가지 품종을 시작으로 추후 4가지 품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준구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부단장은 “농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박철수 무주군산림조합장, NO EXIT 릴레이 동참

무주군산림조합 박철수 조합장이 7일 미야군절 캠페인 ‘NO EXIT’ 릴레이 주자로 선정됐다.

경찰청과 한국미야군제운동본부가 주관하는 ‘NO EXIT’ 캠페인은 미야군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미야의 확산방지를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무주군협과 동별 조합장의 자목을 받아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박철수 조합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무주번역불신협 지대신 이사장을 지목했다.

이날 박철수 조합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미야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란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인증 사진 촬영과 함께 ‘미야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 미야군절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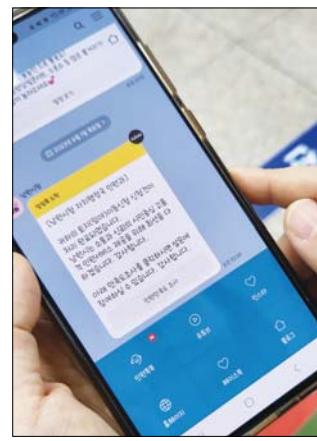


남원시, 전북 최초 민원처리 알림톡으로 발송

남원시가 전북 최초로 6월부터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상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접수한 민원의 처리 단계별 상황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처리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 사업에 확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천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 민원상담 첫봇 ‘민원똑똑’과 함께 구축되어 민원인에게 선제적으로 민원 정보를 제공, 민원 민족도와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이다.

전북지역 최초로 새울행정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시행



하는 이번 서비스는 처리 기한이 2일 이상인 모든 유기한 법정 민원에 대해 △민원 접수 △담당자 지정 △보완·보정 요청 △보완·보정 완료 △처리기간 연장 △처리 완료 까지 민원 처리의 모든 단계를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안내한다.

또한, 최대 2개의 전화번호로 수신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과 용역업체의 직원도 알림톡 수신이 가능하며, 알림톡에는 민원의 처리 상황과 민원 처리 담당자 연락처 외에도 민원 내용 상세보기를 통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고 민원처리 완료 후 민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남원시는 내부적으로도 신속하고 누수 없는 업무 관리를 위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 처리 기한이 3일 남은 민원에 대해 담당자·담당관·부서장에게 ‘민원시전에’ 알림톡을 발송해 민원 처리 기간의 신속도 향상을 유도하고, 관리자가 부서 전체 민원을 살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민원처리 현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관 전체의 민원 관심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권혜정 민원과장은 “민원처리 알림톡 발송으로 민원 투명성과 신속도를 보다 높여나가고, 앞으로도 민원 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로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시민이 주도하는 건강걷기 ‘워크온 챌린지’ 운영

정읍시보건소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다함께 건강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걷기 플랫폼 활용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한다.

7월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워크온 챌린지는 하루 최고 8000보 누적 8만 5000보를 목표로 챌린지에 성공한 1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인센티브(모바일 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

토어에서 ‘워크온’을 검색해 설치한 뒤 정읍시 공식 커뮤니티 ‘1530 위킹정읍’에 기입해 ‘도전!! 2023년 6월 워크온 마일리지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한편 걷기 앱 ‘워크온’의 ‘1530 위킹정읍’ 커뮤니티에는 1만 1138명(6월 2일 기준)이 기입했다. 시는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에서 7일 정책지원관 6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2022년 정책지원관 5명을 우선 채용한 데 이어 이번에 6명을 추가로 채용함에 따라 의원정수의 절반을 모두 채운 것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조사 분석 △예·결산 △의정사무 감사·조사 분석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영일 의장은 “작년에 이어 유능한 정책지원관 임용으로 군산시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채용된 정책지원관은 지방행정7급(일반임기제)으로 채용기간은 2년이며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군산=이재준 기자

군산대 사회봉사센터, WFK 청년봉사단 활동 참여

국립군산대학교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제44기 대학생 해외봉사 월드프레즌코리아(WFK) 청년봉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교육부 신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국 240여 대학이 회원교로 소속되어 있고, 사회봉사활동과 교육에 관한 협력을 통해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44기 월드프레즌코리아 청년봉사단은 전국 72개 대학에서 125명이 선발되었으며, 봉사단원들은 르완다, 캄보디아, 몽골, 우간다에 파견되어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를 중심으로 낙후 지역 어린이와 학생, 지역주민 대상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참가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및 국내교육을 몇 차례 받은 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각 나라별로 일정에 맞춰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준 기자

가수 임영웅 팬카페, 어려운 이웃에 성금 기탁

가수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 전복’ 회원들이 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616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후원된 성금은 팬카페 회원들이 심사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북대 사회복지공동회를 통해 지정된 후 도움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등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팬카페 회원들은 “평소 임영웅 씨의 노래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부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팬으로서 그 마음에 동참하고자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가수와 팬이 한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며 “기부하신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성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준 기자

노리스 김상열 박사, 전북대에 1000만원 기부

(주)노리스 김상열 박사가 전북대에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전북대 빌전기금재단에 따르면 김상열 박사의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사법대학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김 박사는 “글로벌 대학으로 나가기 위해 정진하는 전북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동참했다”며 “대학의 주인아자 미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장이 더욱 발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정읍경찰, 시민순찰대와 등산로 등 범죄예방 대책 논의

정읍경찰서(서장 홍동석)는 7일, 등산로 주변의 가시적인 순찰과 등산객 상대 범죄예방 홍보 등 범죄심리 억제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솔길 시민순찰대’와 산책로의 안전 확보 등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 친안 확보를 위해 소규모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한성 생활안전과장, 정영화 생활안전계장, 오솔길 시민순찰대장 등이 참석하여 진행된 가운데, 간담회 통해 오솔길 시민순찰대의 순찰 코스 현황 및 활동 내용 공유, 순찰 활동 중 애로사항·청취 등 소통의 시간과 함께 산책로 주변 범죄예방홍보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안전과장은 등산로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영농철 빙점 절도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범죄 사례 예방 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오솔길 시민순찰대의 열정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찰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